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우수 공예품.

“문화상품 개발 일원화... 오히려 종류 줄어”

2017년 판매 상위 20개 항목에 진흥원 개발 상품은 2개뿐

문화상품 개발 일원화 후 오히려 상품 종류는 7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예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박물관재단)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서대문 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5종, 2018년 100종의 상품을 개발해 기능 조정 이전 박물관재단이 연간 400개 이상의 제품을 만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70% 이상의 상품 종류가 감소했다.

두 기관은 2016년 '우수문화상품개발을 위

한 업무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고 상품제작을 박물관재단이 요청, 문화상품 개발은 진흥원이 전담하는 것으로 개발업무를 일원화했다.

연 1회 박물관재단에 상품을 공급하는 진흥원은 특별전, 기획전 등의 특화상품 개발 수요에 적시 대응하지 못해 박물관재단이 여전히 일부 상품을 개발·제작하고 있다.

상품개발 일원화 이후에도 여전히 분산되어 개발 중인 문화상품의 2016년 6월~2018년 8월 특관 판매액은 진흥원이 약 950만원, 박물관재단은 약20억원으로 상품 판매

액에서 20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다. 박물관재단의 상품이 생활용품, 식기, 문구류로 다양했던 것에 비해 진흥원의 제품은 대부분 문구류에 집중된 점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호 의원은 “공예디자인진흥원이 문화상품과 같은 대중상품과 더불어 공예상품처럼 예술성이 필요한 상품의 개발 또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있다”며 “하지만 문화상품의 경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에게는 기념품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중적 상품과 예술작품 사이의 문화상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정읍시, 붉은 유혹의 내장산 단풍맞이 'KBS 열린음악회' 개최

내장산 붉은 단풍의 향연과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질 KBS 열린음악회(이하 음악회)가 내장산 문화광장에서 이달 26일 저녁 7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는 정읍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내장산의 단풍과 천년의 사랑 백제가요 정읍사, 민중의 함성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전국최고의 농악인 우도농악의 성지인 역사·문화·예술의 보고장 정읍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기에 전라도 정도 천년, 전라도 방문의 해까지 함께 기념하여 그 의미를 더욱 더했다.

이번 음악회는 KBS한국방송공사가 주최·주관하고 정읍시가 협찬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는 이현주 아나운서의 사회로, 최근 평양 방문 이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레드벨벳을 비롯한 모모랜드, 스트레이 키즈, 박애리·판권현준 부부, 서문탁, 박완규, 김소현·손준호 부부와 송대관 등이 출연하여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초대권은 17일부터 정읍시 23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와 정읍시립박물관 및 KBS전주방송총국을 통해 선착순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관객들은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선착

순으로 입장권 좌석 배정이 이루어지므로 좌석 만석 시 초대권 소지자도 입장이 불가하다. 다만 공연장 주변 스탠딩 관람은 가능하다. 또한 관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셔틀버스는 수성주공1차아파트, 정읍시청 후문, 정읍교육청, 내장산문화광장의 코스로 운행된다. 공연 전 첫 출발은 오후 3시부터 30분 간격으로 8회 운영한다. 공연 후에는 오후 10시와 10시 30분에 2회에 걸쳐 운행한다.

정읍시 페이스북 '정읍관광마켓'에서는 지난 5일부터 음악회 출연진을 맞추면 추첨을 통해 초대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일 기준 3만4천명이 참여했다. 시는 이번 이벤트에 관심을 보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읍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감동관광도시 정읍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읍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정읍관광상품 홍보·판매 기획전'을 열어 다양한 관광기념품들과 정읍시 대표브랜드인 단풍미인 쌀과 한우 등을 함께 홍보한다. 또한 정읍을 소재로 개발한 다양한 베이커리의 출시전도 함께 한다. 이를



통해 정읍시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소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국의 알프스’ 무주덕유산리조트서 펼쳐진 요들 향연

단풍이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 ‘한국의 알프스’ 덕유산 정상에 요들송이 울려 퍼졌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에 따르면, 지난 7일 설천봉 야외공연장에서 알프스풍의 의상을 입은 요들 공연을 펼쳤다. 한국요들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공연에서 110여명의 단원들은 스위스 알프스 전통 의상을 입고 행진 퍼포먼스를 펼쳐며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스위스의 대표 민속 악기 중 하나인 알프스혼과 혼성합창, 나무 숟가락 두 개를 겹쳐 연주하는 우드 스푼 공연 등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진귀한 공연을 선보였다.

가성으로 내는 고음과 흥성으로 내는 저음을 빠르게 교차하며 부른 요들송은 등산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특히 국내 프로 요들러 중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요들러 서용울씨가 감작스러운 깜짝 공연을 선보이며



흥을 돋우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덕유산 설천봉 정상에서 요들송이 울려 퍼져 스위스 알프스에 온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관객들의 호응이 높았다”면서 “등산객들과 리조트 가족단위 투숙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공연을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 정우초등학교 난타부.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빛낸다’

정읍 정우초 난타팀, ‘트랜스 포머’ 연주로 뜨거운 호응

정읍 정우초등학교(교장 전영기) 방과 후 난타부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인정받아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연계 추진하는 2018년 전북어린이대음악제에 학교 연주단으로 선정되었다.

지난 7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린 ‘2018 전라북도어린이 대음악제 WITH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정우초 난타팀은 국악기락과 서양리듬을 조화시켜 마치 로봇의 변신하는 모습을 나타낸 ‘트랜스 포머’ 난타 연주를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보러온 한 관객은 “에너지 넘치는 난타 공연을 보니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다”는 말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

다. 정우초 난타팀은 2012년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방과후 및 학생 동아리 활동으로 꾸준히 맥을 이어오고 있다. 정읍시 주최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대상(4회)을 수상했으며, 지역별 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지역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을 받아 공연을 펼치는 등 학교를 대표할 만한 활발한 활동으로 정우초등학교만의 전통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정우초는 난타부 외에 피아노, 바이올린,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 및 방과후 활동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